



尹東潤(제신부 차관)

## 정보사회 앞당기는데 일익

정보통신산업 현안문제에 대한

대화와 토론의 장이 됨은

물론, 정부의 정책수립에도 참고...

월간 「정보화사회」의 創刊 4주년을 중심으로 축하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우리나라 情報通信産業의 발전을 위해 민간과 정부간의 가교역할 및 정책개발 지원업무등을 충실히 수행하여 온 情報通信振興協會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월간 「정보화사회」는 우리나라의 情報通信産業이 아직 일반의 인식조차 미미하던 지난 87년, 이 분야의 전문매체로 創刊된 이래 情報通信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방향, 기술동향, 시장정보, 업계의 소식등을 제때에 효과적으로 알림으로써 국내 情報通信産業 발전에 크게 이바지해 왔습니다.

특히 情報通信産業 현안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으로 구성되는 논단란은 업계와 학계, 연구계 관계자들에게 대화와 토론의 場이 됨은 물론 정부의 정책수립에도 좋은 참고가 되고 있습니다.

情報通信産業은 그 자체가 고부가가치의 첨단산업일 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情報社會의 기반산업으로서 모든 나라들이 이의 육성발전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2천년대 선진국 진입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情報通信産業의 육성이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情報化에 대한 정보유통 창구 역할을 하는 전문매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며, 특히 情報通信振興協會에서 발간하는 월간 「정보화사회」에 거는 우리의 기대는 매우 큰 것입니다.

초창기의 어려움을 딛고 불과 4년만에 오늘의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한 「정보화사회」는 앞으로도 더욱 알차고 새로운 내용을 담아 情報社會를 앞당기는데 중요한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월간 「정보화사회」의 創刊 4주년을 다시한번 축하하며, 協會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